

한빛원전, 방폐물 포화... 위험천만 '차량 이송' 추진

〈200ℓ 들이 1000드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
(단위: 200ℓ 드럼, 13년 6월말 기준)

원전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연도
고리	50,200	41,461	2021년
신곡리	10,000	361	-
영광	23,300	22,170	2014년
월성	13,240	10,457	2015년
울진	18,929	16,575	2015년

〈출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13년)〉

원전 당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저장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국내 전력수요의 10%를 담당하는 영광 한빛원전이 내년 초부터 전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6면>

포화상태에 달한 한빛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까지 해상을 통해 이송해야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당국 및 사업자 측이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당국과 한빛원전 측은 어민 설득에 실패할 경우 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육상 이송'이라는 조류의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

저장능력 연말까지 포화상태... 내년 초 전면 가동중단 위기 어민들 반대에 경주 방폐장까지 화물차 이용 육길 계획 이송 경로 주민·지자체 '안전성 논란' 격렬한 반발 예상

인됐다.

6일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에서 임시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량은 올해 연말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경주 방폐장으로 운송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방사성 폐기물 이송 및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저장능력은 200ℓ 들이 2만3300드럼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2만2170드럼이 저장된 상태다. 또 올해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명기돼 있다.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애초 11월께 선박(정장누리호·26000t)을 이용해 1000드럼을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어업손실 등을 우려한 영광지역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사실상 연내에 실행에 옮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광지역 어민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이송에는

걸림돌이 많다. 해상 이송에 따른 ▲안전성 검토 ▲발전소 내 선박 접안지역 준설 ▲해상 이송 경로(843~902km) 주변의 어민 설득 ▲시험 운항 등 넘어야 할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발전소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민 설득에 실패할 경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육상 이송의 경우 안전성 논란에 따른 이송 경로 주변 주민 및 자치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애초 11월 안으로 1차 해상 이송이 계획돼 있었지만 안전성 논란과 어업 손실에 따른 어민들 반발로 늦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 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폐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지, 폐 필터, 농축 폐액, 잡고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어지고 있다"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으로 내년 초가 되면 사실상 발전소 가동이 멈출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황이라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육상 이송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한수원 측이 육상이송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해준 만큼 원전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방사성 준위가 가장 낮은 폐기물 순으로 육상을 통해 이송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남도 3000억 공사 입찰 지역 건설사들 경쟁 치열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최근 3~4년 사이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의 입찰공고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지역 SOC 건설 물량이 수년 새 잇따라 감소하면서 건설경기도 최악이어서 3000억원대의 이 사업 수주를 놓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에는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의 사업비 2756억원보다 382억원이 증가한 31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조정 과정을 거쳐 조달청에 넘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기업도시 진입도로 10.8km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기초금액 8억 2000만원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영암호를 가로질러 영암 삼호와 해남 산이를 잇게 되며, 해남의 구성지구와 영암 삼호·삼포지구를 사실상 묶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통되면 기업도시 접근성이 좋아져 투자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터키(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구간에는 '연약 지반과 교량'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남도는 최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약지반과 교량 구간을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분리해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1공구와 2공구를 분리해 각각 터키로 발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체한 건설경기 속에 최근 수익성이 나빠진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대형 업체마저 사업 수주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지역 업체에 따르면 대립과 포스코, 한양 등 1군 업체들이 입찰 참여를 검토중이며 금호와 남양, 금광 등 지역 업체도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어느 회사가 맡느냐를 놓고, 업체별 전략 짜기에 들어갔다"며 "수년 새 가장 큰 '대물'인 만큼, 낙찰받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 '시동' 걸었다

'자동차산업벨트' 추진위 출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을 위한 '자동차산업벨트'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자동차산업벨트 추진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지수 국민대 총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근 기자노조 광주지회장 등 정계·학계·산업 노동계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인제개발원장을 지내 정무부 회장과 인연이 있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맡는다.

출범식은 윤장현 시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며 김동철 위원장,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주요 위원들의 축사, 자동차산업벨트 추진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추진위는 앞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전략 자문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지역 유치 활동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회통합 노력 ▲국비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대외 활동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서울과 광주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며, 중



공무원 연금개혁 포럼 '몸싸움'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직연금 강화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투쟁본부'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 국민포럼 관계자들이 광주·전남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 했다. <관련기사 4·6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요 시안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자동차산업벨트 조성 사업은 국내 제조업 발전과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혁신 공청회 ▶2면

스포츠와 문명화 Books ▶16·17면

해원 정구오목사 출생 100주년 감사예배
11월 11일(화) 17:00~20:00
율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제8회 해원기념강좌
11월 12일(수) 10:40~14:00
광신대학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000

HERA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매체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료유급면) www.hera.co.kr